

‘이중 고기압’ 덮친 한반도…최악의 폭염 계속된다

광주·전남 괴물폭우 이어 극한폭염…온열질환자 170여명 발생
올 여름 폭염일수 16일째·체감온도 35도 넘고 열대야도 계속
다음 주 중반 이후엔 ‘폭염’과 ‘폭우’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 전망

한반도가 ‘이중 고기압’에 뒤덮이면서 올 여름 최악의 폭염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관련기사 3면〉
‘괴물폭우’에 이어 극한폭염이 광주·전남을 비롯해 전국을 덮친 가운데 한반도 남쪽 필리핀 해상에서 태풍 조짐까지 관측돼 다음 주 중반 이후 ‘폭염’ 아니면 ‘폭우’를 맞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예고됐다. 광주·전남지역에서 현재까지 170여명에 달하는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고, 바다까지 끓어오르면서 여수시에서는 조피불락(우럭) 긴급 방류 조치까지 취해지는 등 피해도 전 부문으로 확산하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4일 현재 한반도 상공을 북태평양고기압이 덮고 있는 가운데 티베트고기압까지 우리나라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두 개의 고기압에 둘러싸였다고 설명했다.

고온다습한 북태평양고기압이 고도 5여km 대기 중상층을 덮고 있고, 고온건조한 티베트고기압이 서쪽에서 세력을 넓혀 이중의 고기압이 형성돼 있는 형국이다.

결국, 고온의 고기압이 중첩돼 한반도 내부의 열이 빠져나갈 길이 없는 상황에서 햇빛이 강하게 내리쬘면서 열이 축적돼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광주·전남을 비롯한 서부 지역은 더위가 증폭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대기 하층의 저기압 영향으로 불어온 남동풍이 백두대간을 넘으면서 고온건조해지는 편현상 때문이다.

편현상은 바람이 산을 넘으며 건조해지고 뜨거워지는 현상으로 건조한 공기와 습윤한 공기의 고도에 따른 기온 변화 폭이 달라 발생한다.

이날 진도, 거문도, 초도를 제외한 광주·전남 전역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졌으며, 진도와 거문도, 초도에는 폭염주의보가 발령돼 있다.

광주를 기준으로 폭염일수(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는 16일째다.

기상청은 당분간 광주·전남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오르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25일 아침최저기온은 22~25도, 낮최고기온은 34~36도로 오르며, 26일도 아침최저기온은 23~26도, 낮최고기온은 33~36도로 무더울 것으로 예상된다.

날씨의 변곡점은 한반도가 태풍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있는 다음 주 중반이다.

남쪽 필리핀 해상에서 해수면 온도가 높아 태풍이 잇따라 생성되고 있다. 기상청은 특히 제16호 열대저압부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 열대저압부는 24시간 내에 제9호 태풍 크로사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태풍 영향권에 들면, 다음 주 중반부터 본격적인 날씨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불볕더위’나 ‘폭우’ 두 극단적인 날씨가 예측되고 있다.

태풍이 우리나라로 고온다습한 남동풍을 밀어넣는 상황에서 북태평양고기압이 세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북태평양고기압이 한반도에 그대로 머무른다면 폭염이 지속되고, 태풍에 밀려 동쪽으로 물러난다면 고온다습한 공기가 북쪽의 찬 공기와 충돌해 폭우가 쏟아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최소한 다음 달 초까지는 평년 기온을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 관리를 철저히 하길 바란다”며 “영유아·노약자·임산부·만성질환자는 온열질환에 걸리기 쉬우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바다 수온 상승에 조피불락 방류

여수시는 지난 23일 여름철 고수온과 적조로 인한 양식 어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정면 해역에서 조피불락 치어 13만 마리를 긴급 방류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한은, 금중대 300억 폭우 피해지역 중소기업 지원

광주·전남 등 지역본부 긴급 배정
중기 특별지원 9조원 기한도 연장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유보분 300억원을 집중호우 피해 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한 관할 지역본부에 긴급 배정해 중소기업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시중은행에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해당 자금이 중소기업 등의 대출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한은은 호우 피해가 발생한 광주·전남과 경남 본부에 각 100억원, 경기와 대전·세종·충남본부에 각 50억원을 배정했다.

이번 자금 지원 대상은 폭우 피해를 본 중소기업

이며, 지원 비율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액의 100%다.

한은은 “호우 피해 상황, 대상 중소기업 대출 수요 등을 점검해 필요 시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한은은 9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최초 도입분 기한을 이달 말에서 내년 1월 말로 6개월 연장했다.

한은은 “대의 불확실성 증대로 얼얼 회복이 지연되고 자금 사정이 어려운 저신용 자영업자와 지방 중소기업 등 취약 부문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지난해 1월 9조원 한도로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을 시작한 데 이어 올해 1월 1년 기한의 5조원을 증액해 총 14조원 규모의 지원 제도를 운영해왔다.

한편, 정부는 이날 김광웅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법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

회의를 열고 집중호우 피해 복구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호우 피해 복구 대책 추진 계획과 부처별 피해 지원·복구 대책, 지자체 피해 현황 및 응급복구 추진 상황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피해 이재민을 위한 온열질환 예방 및 구호·심리 지원, 침수 주택·농업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 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수도·전기·통신 복구, 도로 통행 재개, 하천 제방 복구를 비롯해 공공시설 응급복구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한 인력·장비 응원체계도 점검했다.

김광웅 본부장은 “정부는 모든 역량을 결집해 한 순간에 삶의 터전과 가족을 잃은 이재민의 고통을 덜고, 피해 시설을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나주 이주노동자 가혹행위…이 대통령 “철저히 엄단”

“인권침해 중대한 범죄”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나주 한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화물에 묶인 채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영상과 관련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아만적 인권침해를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관련 영상을 올리고 “영상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면서 “세계적 문화강국이자 민주주의 모범국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소수자, 약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적이며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6면〉

또 “힘없고 궁궁한 처지에 있는 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사회의 품격을 보여주는 법”이라며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악용한 인권침해와 노동착취가 벌어지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대한민국 노동자들도 일자리를 찾아 해외 각지에서 고초를 겪었고, 그 수고 덕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며 “생업을 위해 이역만리 길을 떠난 대한민국 국민이 귀하듯, 이주노동자들의 기본적 인권도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시작하면서 “아침에 어떤 분이 외국인 노동자를 집에 매달아 놓고 지게차에 싣고 다니며 괴롭히는 장면이 있는 영상을 보여줬다”며 “충격적인 장면”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 집안의 가장일 가능성이 높고 인격을 가진 사람인데 모멸적 대접을 이역만리 타국에서 받았으니 얼마나 괴롭고 외롭고 서러웠겠느냐”면서 “전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을 과연 어떻게 볼까 참으로 걱정되는 장면이며, 매우 중대한 범죄이자 인권을 침해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OK! Now Jeonnam

“ 힘내라 우리국민! 힘내라 우리경제! ”

민생회복 소비쿠폰(1차)

"찾아가는 시설 방문 신청"

< 운영기간 : '25.7.28.~9.12. / 집중운영기간 : '25.7.28.~8.1. >

대상시설

° 노숙인시설, 노인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시설, 정신시설, 정신의료기관, 한센인시설

신청방법

° 시설이 있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희망 방문일정 요청 (협의)
▶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시설 방문 ▶ 시설 생활자 대상 신청·접수 ▶
지급준비 통보 및 재방문 일정 안내 ▶ 시설 재방문, 지원금 지급

지원금 (1차)

° 1인당 18만원~45만원
(일반국민 18~20만원/차상위·한부모 33~35만원 / 기초수급자 43~45만원)
※ 2차 지원금 10만원은 추후 별도 지급

지급수단

° 지역사회상품권 및 선불카드
° 신용 체크카드(해당 카드사에 신청)

사용처

° 지역사회상품권 가맹점,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업체
(마트 등 유사 업종이 없는 면지역에 한해 하나로마트 사용 가능)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금 신청하세요~